

【논 문】

#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와 간도침략\*

신 효 승\*\*

┌ 차 례 ─┐

- I. 여는 말
- II. 1918년 일본의 『帝國國防方針』 개정
- III. 1920년 ‘조선군’의 간도침략 계획의 수립
- IV. 맺음 말

— 국문초록 —

1920년 청산리 전역과 경신참변으로 이어진 일본군의 간도침략은 일본의 대륙 침략의 과정이었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군사전략을 기반으로 하였고, 군사전략은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일본은 군사전략을 수정하였다. 일본은 대륙뿐만 아니라 태평양 방면으로도 진출하여 제국주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 군사력이 부족하였다. 일본은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인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인은 독립을 위해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상해에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인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추진하였고, 북간도의 독립군 역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인 무장 독립운동은 일본의 군사전략과 충돌하였다.

\* 이 글은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기념사업회의 창립 세미나(2016.11.29.) 때 발표한 글을 수정하였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여기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1920년 ‘간도침략’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독립군, 1차 세계대전, 청산리, 경신참변, 일본군, 군사전략, 독립운동, 민족, 간도, 간도참변, 간도출병

## I. 서론

1920년 10월 일본군은 함경도 회령을 통해 간도를 침략하였다. 이들은 조선군 예하 19사단을 주축으로 한 일본군 부대였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琿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지역 내 독립군을 공격하고, 한인까지 탄압하였다. 간도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던 많은 한인이 이 과정에서 학살당하였고, 그들의 터전 역시 파괴당하였다. 이른바 ‘庚申慘變’이었다.<sup>1)</sup>

간도를 근거지로 독립전쟁을 준비 중이던 독립군은 일본군과 충돌을 피해 이동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이 조기에 주요 지역을 선점하면서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청산리 일대에서도 독립군은 일본군과 충돌하였다. 이른바 ‘청산리 戰役’이었고, 일본군이 ‘間島出兵’이라는 지칭하는 간도침략이었다.

일본군의 간도침략은 일본의 대륙 침략정책의 연장선에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한말 국권회복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한 항쟁이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2)</sup> 이때 항일 독립운동의 주체는 한민족이었고, 영토에서

1) 1920년 10월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만행과 그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間島慘變’, ‘庚申慘變’ 등으로도 일컫는다. 시기를 중심으로 할 경우 ‘庚申慘變’이라고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경우 ‘間島慘變’으로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김춘선, 2000, 『庚申慘變 연구』, 『한국사연구』 111; 정예지, 2011, 『경신참변(庚申慘變)기 조선인 “귀순”문제 연구: 북간도를 중심으로』, 『史林』 38;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등). 1918년 일본이 추진한 ‘시베리아파병’을 일본의 대륙침략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1920년 4월 연해주 일대에서 벌어진 ‘4월 참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기적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여 ‘경신참변’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 권력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up>3)</sup> 이를 위해 무장 항쟁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민족 중심의 독립운동은 근대 국민 국가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인 무장저항은 민족 중심의 독립운동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연구는 무장 독립운동을 강제 병합 이후 일본의 대륙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다.<sup>4)</sup> 특히 1920년 중국 동북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충돌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다만, 무장 독립운동을 일본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변화와 그 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국제 관계와 전쟁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무장 독립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무장 독립운동은 군사적 활동이었고, 군사전략은 군사적 활동의 근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작전계획은 군사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군사전략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작전계획의 수립과정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을 살펴보았다. 군사전략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동은 군사전략의 변화로 이어졌다. 『帝國國防方針』은 일본 군사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었다. 일본군부의 요구에 따라 일왕 주관 하에

2)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371~372쪽.

3) 박찬승, 2007,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30~33쪽.

4) 대표적으로 일본군의 목적을 안전 보장과 치안 유지, 그리고 제국 확장의 침병으로 보는 것이다(토베 료이치, 2005, 『조선주둔 일본군의 실상: 치안·방위·제국』,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5). 일본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러한 관점을 기반하였다(임종국, 1998, 『조선침략사』, 일월서각; 채영국, 1992, 『3.1운동 전후 일제 「조선군」(주한일본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유한철, 1992, 『日帝 韓國駐劄軍의 한국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일본정부의 국가 정책까지 포함하여 「제국국방방침」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帝國國防方針』 개정 과정을 통해 일본 군사전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본군의 간도침략 이른바 ‘간도출병’은 1918년 『帝國國防方針』 개정 이후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군사적 실행 과정이었다. 즉 ‘간도출병’ 작전계획에서 군사전략의 변화 내용과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도침략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보았다.

## II. 1918년 일본의 『帝國國防方針』 개정

일본 육군은 한국과 만주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전지역으로 인식하였다.<sup>5)</sup> 이러한 공간적 인식을 토대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과 만주를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토대가 이른바 『帝國國防方針』이었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帝國國防方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帝國國防方針』을 수립하여 국정 전반에 적용하였다. 『帝國國防方針』은 국방 방침(『日本帝國國防方針』)과 이를 위한 소요 병력(『國防ニ要スル兵力』), 그리고 병력 운용을 위한 강령(『帝國軍用兵綱領』)의 3부로 이루어져 있다.

『帝國國防方針』은 일본의 대외 상황을 바탕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방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때 일본은 국가 안위를 절대적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제반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帝國國防方針』은 안보를 담보로 국가 운영의 제 분야까지 결정할 수 있었고, 국방 전략을 최고 상위에 두고 여기에 국가 정책을 종속시켰다.<sup>6)</sup>

5) 조명철, 1995, 「러일전쟁기 군사전략과 국가의사의 결정과정」, 『일본역사연구』2, 1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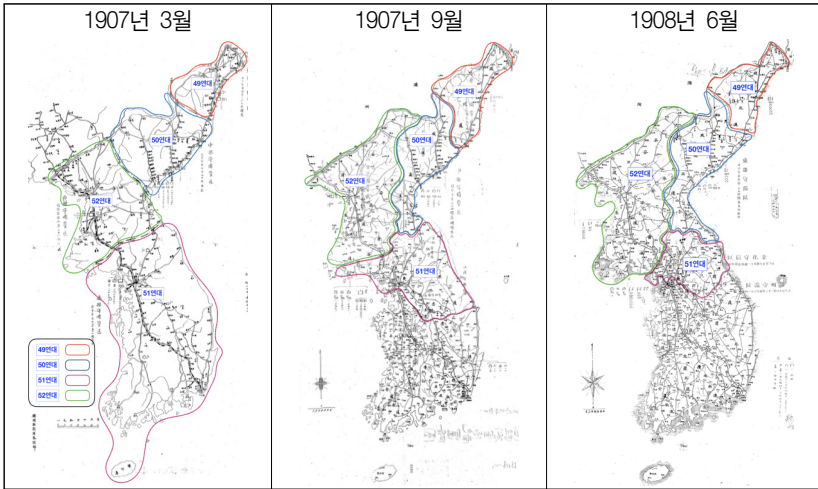
6) 黒野耐, 1996, 「『帝國國防方針』政戰略考」, 『國際政治』 121, 175쪽.

1907년 『帝國國防方針』 처음 수립할 당시에 일본은 제정 러시아를 제1상적국으로 상정하였다.<sup>7)</sup> 일본 육군은 『帝國國防方針』을 이유로 최우선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고려하여 군사력을 집중하였다. 이때 군사적 고려사항은 어디를 戰場으로 할 것인가와 어떻게 전력을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여기에서 야마가타의 이익선과 주권선 개념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일본 육군은 야마가타의 개념에 따라 주권선을 절대 침범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경계로 두고, 이익선은 주권선을 위한 경계로 두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주요 전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중국 동북지역)와 오소리(우수리스크) 그리고 한반도를 주요 전장으로 군사 전략을 계획하였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 작전 지역으로서 일본 육군의 主攻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연해주의 우수리스크 방면은 주 작전지역의 부대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공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보조 작전지역으로 계획하였다.<sup>8)</sup> 한국 주둔 일본군은 보조 작전지역의 조공부대로 편성하였다. 한국 주둔 일본군의 임무는 러시아와 개전 시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러시아군을 고착 견제하는 것이었다.

7) 『日本帝國/國防方針』, 『帝國國防方針』(1907)(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061024200). 일본 육군은 매년 작전 계획을 작성하여 일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일본 육군의 예하 부대는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1907년 『帝國國防方針』 수립 이후에는 이에 따라 『日本帝國陸軍作戰計劃』을 작성하여 일본 육군 이하 각 제대별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육군 전체는 일관된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할 수 있었다(高田甲子太郎, 1984, 『國防方針制定以前の陸軍年度作戰計劃』, 『軍事史學』 20(1)).

8) 『帝國軍/用兵綱領』, 『帝國國防方針』(1907).



<그림 1> 1907~1908년 대한제국 주둔 일본군 배치<sup>9)</sup>

한국 주둔 일본군의 배치 역시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듯 1907년 『帝國國防方針』 수립에 따라 일본 육군은 한국 주둔 일본군을 북부 지역 특히 함경도에 집중하여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부대 배치의 변화는 당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도 이러한 군사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일본 육군은 한국 주둔 일본군을 ‘한국주차군사령부’와 ‘임시한국과건대사령부’를 ‘朝鮮駐劄軍司令部’와 ‘臨時朝鮮派遣隊司令部’로 개칭해 계속 주둔시켰다.<sup>10)</sup>

하지만 일본 육군은 국제 관계와 군사적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러시아에 대비한 부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육군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횡단 철도 구간 중 연결이 안 된 구간의 부설에 착공하는 등 러시아의 군사적 상황이 변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의 필

9) 신효승, 2018, 『20세기 초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지도 2-3.

10) 『朝鮮駐劄軍歷史』 1卷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3070070600).

요성을 주장하였다. 일본 육군 원로인 아마가타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완공하면 러시아군을 중국 동북지역으로 신속하게 증원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일본군이 예상한 시간보다 빠르게 러시아의 전쟁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반면 일본은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에도 동원한 병력을 계획한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철도로 이어지는 수송 시간이 필요하였다. 만일 일본군의 수송 시간보다 러시아군의 동원이 빠를 경우 연해주의 러시아군은 함경도를 거쳐 한반도 북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2)</sup> 따라서 연해주의 러시아군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기 이전에 우수리스크에서 연해주의 러시아군을 고착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예상을 근거로 일본 육군은 한국에 상주하는 2개 사단의 증설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결국 일본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은 군사적 상황을 빌미로 요구를 관철하였다.<sup>13)</sup> 일본 육군은 1915년부터 한국에 보병 2개 사단 규모의 상주 부대 증설을 시작하였다.<sup>14)</sup>

조선에는 수비를 위해 종래 1개 사단 반의 병력을 내지에서 파견해 교대로 주차하였으나, 이 제도는 신 영토의 치안유지상 적당하지 않음은 물론 군대의 견제를 파하고 교육과 경리를沮礙할 뿐 아니라 전시 동원상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대를 野戰에 사용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여 국방 계획에 다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방상 상비군 병력 증가의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2개 사단으로 증설해 이것을 조선에 상치하고 동시에 교대 파견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여 본년도에 임시제국회의의 協贊을 거쳐 실시의 단서를 열었다.<sup>15)</sup>

- 
- 11) 『2個師団増設理由書 同所要額調』(1911. 12. 2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061034000).  
 12) 1914년 일본군은 연해주와 시베리아의 러시아군 규모를 평시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였다(鳥貫武治, 1967, 『戰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昭和十五年五月まで』, 防衛研修所戰史室, 210쪽).  
 13) 조명철, 2010, 「上原 육군대신의 사퇴와 사단증설문제」, 『사총』 71, 354~355, 365쪽. 특히 전쟁에서는 열차시간표와 같은 기계적 대응을 요구하였다(마틴 반 클레벨트, 이동욱 역, 2006, 『과학기술과 전쟁-B.C. 2000부터 오늘날까지』, 황금알, 198~202쪽).  
 14) 『師団増設ノ件』(1912. 7. 31), 『軍事機密大日記』 2/2(1912)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019700).  
 15)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5)』(신주백, 2000,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

하지만 1914년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본 육군은 더는 러시아군의 위협을 근거로 삼기 어려웠다. 기존 일본의 군사전략은 군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적국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대응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그 동맹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였다.<sup>16)</sup> 특히 제1가상적국을 러시아로 상정하고, 여기에 군사력을 집중하였다. 일본 육군은 러시아와 전쟁 시 필요한 전력을 육군은 50개 사단 약 100만 명으로 산정하였다.<sup>17)</sup> 그런데 그 러시아군이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다.

결국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군사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였다.<sup>18)</sup> 이것은 1907년 수립한 『帝國國防方針』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 해군은 미국과 전쟁 가능성이 커져 미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본 해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본 육군 전력은 줄어들었다.<sup>19)</sup>

이처럼 일본군의 군사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었다. 일본 육군의 2개 사단 증설 요구 역시 당시 연해주와 시베리아 주둔 러시아군의 전력을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sup>20)</sup>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에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육군은 러시아의 동원과 증원 속도 등을 근거로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66일 이내에 수송을 완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것은 전쟁 초반 주도권을 일본 육군이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사연구』 109, 118쪽 재인용.

16) 島貫武治, 1967, 앞의 책, 219쪽.

17) 伊藤正徳, 1941, 『国防史』, 東洋經濟新報社, 91쪽.

18) 『各国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1920.04.~1923.12.), 『各国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 / 米國ノ部』 第一卷(아시아역사자료센터 B07090039900).

19) 후지와라 아키라, 엄수현 역, 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170쪽. 일본군은 對美 주요 전력을 종래 '88함대'에서 각 8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2개 함대와 8척의 순항함으로 증강하였다. 이른바 '888함대' 계획이었다(島貫武治, 1967, 앞의 책, 221쪽). 이는 일본의 군사전략이 미국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 『2個師団増設理由書 同所要額調』(1911. 12. 2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061034500).

21) 『動員並要艦防禦計畫船舶輸送準備計畫書提出の件』(1922.3.30.)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111500).

러시아 혁명으로 재정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러시아 혁명 정부의 존립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육군은 더 이상 군사전략상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일본 육군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적 필요가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1918년 3월 러시아 혁명정부와 독일은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육군은 강화조약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맹군이 러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로 동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철도로 연결된 유라시아는 유럽 국가의 군대가 동북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 해군의 전력을 강화하면서 육군 전력은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일본 육군은 시베리아에 완충지대를 구축하여 이익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일본은 연합군이 체코군 철수를 위해 공동 파병을 요구하자, 1918년 8월 시베리아 파병을 선언하였다.<sup>23)</sup>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영토 외부에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국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쟁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 관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연합군의 요구 이전부터 시베리아에 군대를 보내 점령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당시 일본은 연해주의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원정군 파병을 검토하였다. 실제 1917년 11월에는 1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연해주에 파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4)</sup> 이듬해 1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일본인 거류민 보호를 빌미로 부대를 파병하였다.<sup>25)</sup> 1918년 3월 3일 일본군은 러시아 혁명정부와 독일이 단독강화를

22) 『山県有朋의 時局觀』(1918. 3. 15.), 『山県有朋意見書』 山県有朋은 1918년 3월 3일 러시아와 독일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자, 3월 15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참모본부에 제출하였다.

23) 『露領出兵ニ関スル宣言』(1918. 8. 2.), 『公文類聚』 第四十二編 第十三卷(1918) (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1200149200).

24) 島貫武治, 1967, 앞의 책, 211쪽.

하자, 일본군은 10개 사단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6)</sup> 결국 일본은 체코군 철수를 이유로 대규모 병력을 시베리아에 파병하였다.<sup>27)</sup> 1918년 6월 『帝國國防方針』 개정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의 변화와 일본 내부의 군사적 주도권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림 2〉 對極東露國鐵道經營圖<sup>28)</sup>

일본은 1918년 『帝國國防方針』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帝國國防方針』에 서도 여전히 러시아를 제1가상적국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다만 미국의 비중이 늘어났고, 중국을 가상적국에 포함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 작전지역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바이칼호 동쪽지역으로 바뀐 것이었다.<sup>29)</sup> 그 이유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군대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25) 島貫武治, 1967, 위의 책, 211~212쪽.

26) 島貫武治, 1967, 위의 책, 212쪽.

27) 후지와라 아키라, 1994, 앞의 책, 167쪽.

28) 『附表 附表第一 對極東露國鐵道經營圖』, 『2個師団増設理由書 同所要額調』(1912. 11. 2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061034500) 원은 필자.

29) 西原征夫, 1969, 『戰史叢書: 關東軍(1) 對ノ戰備・ノモンハン事件』, 防衛研修所戰史室.

동북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치타 이후에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동청철도와 분기되었다. 치타에서 만저우리 지역은 러시아의 서부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sup>30)</sup> 결국 이르쿠츠크에서 이만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구간 중에 바이칼호 남단의 예로지역과 중첩하는 구간을 일본군이 점령한다면 바이칼호 서편과 동편 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sup>31)</sup>

일본 육군은 우선 관동군 예하 7사단을 동원해 대련에서 만저우리까지 이어지는 동청철도를 점령하였다. 8월 말에는 3사단을 동원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장악하였다.<sup>32)</sup> 이후 9월에는 만저우리를 점령하면서 바이칼호 동쪽의 시베리아를 점령하였다. 명목상 체코군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3)</sup> 일본 육군이 바이칼호 동쪽을 점령하면서 연해주의 러시아군을 고착 견제하기 위한 朝鮮軍<sup>34)</sup>의 임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조선군의 임무는 한국의 치안 유지에 주력하면서 전시 후방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up>35)</sup>

하지만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의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는 파르티잔 활동이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군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었다.<sup>36)</sup> 일본은

30) 日本陸軍參謀本部, 1924, 『西伯利出兵史: 大正七年乃至十一年』 上, 39~45쪽.

31) 신효승, 2018, 『20세기 초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인 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 ~204쪽.

32) 후지와라 아키라, 1994, 앞의 책, 167쪽.

33) Jamie Bisher, *White Terror: Cossack Warlords of the Trans-Siberian* (New York : Routledge, 2005), pp. 248-249.

34) 1918년 5월 29일 한국에 2개 사단을 증설 배치하면서 일본군은 한국 주둔 일본군을 ‘朝鮮駐軍軍司令部’에서 ‘朝鮮軍司令部’로 변경하였다(『師團司令部條例外2條例改定の件』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428400).

35) 『大正10年度第13師團作戰計畫圖綴』, 『第13師團作戰計畫圖綴』(1921)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5120081000.

36) 특히 러시아 적군계열의 빨치산은 일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歩兵第72連隊歴史資料』, 14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110889800). 『陸軍歩兵中佐田中勝輔外三名特旨叙位ノ件』, 『叙位裁可書』 叙位卷五(1919)아시아역사자료센터 A11112689300). 이처럼 파르티잔에 의한 일본군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고, 국내에도 그런 상황을 보도하였다(『毎日申報』 1919. 3. 5., 『極東時局: 田中校隊苦戰』).

점령 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결국 시베리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sup>37)</sup> 하지만 일본군이 완충지대 구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폴란드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일본은 다시 시베리아 파병을 추진하였다.<sup>38)</sup> 결정적으로 일본은 니콜라옌스크나야무레에서 일본 영사를 비롯하여 일본인과 일본군이 전멸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sup>39)</sup> 이를 빌미로 재파병을 선언하였다. 4월에는 교두보 확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였다.<sup>40)</sup> 그리고 6월 28일 일본은 시베리아 파병을 공식화하였다.<sup>41)</sup>

문제는 지역 내 파르티잔이었다. 일본군이 시베리아 일대를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파르티잔은 일본군의 점령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 내에서 일소할 필요가 있었다. 파르티잔의 배후였던 러시아 혁명정부가 폴란드와 전쟁으로 시베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일 무장 저항을 주도하고 있는 한인과 그들의 근거지가 파르티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sup>42)</sup> 따라서 일본군은 파르티잔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인과 그 근거지를 일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상 필요에 따라 일본군은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독립군과 그 근거지인 지역 한인 사회를 탄압하고자 간도침략을 계획하였다.

37)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체코군이 러시아에서 체코로 온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에 미국 등 연합국은 러시아와 이른바 ‘간섭전쟁’을 하였다(RUSSIA,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19)*, p. 297,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는 미 국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이하 FRUS) 1919년 말 체코군의 철수가 본격화하면서(RUSSIA, *FRUS(1919)*, p. 585), 미군 역시 1920년 1월 9일 철수를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하였다(‘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Japanese Ambassador (Shidehara) Washington, January 5, 1920’, in *FRUS(1920), VOLUME III*). 파병에 대한 일본 정부 역시 시베리아에서 철수를 선언하였다.

38) 신호승, 2018, 앞의 책, 183쪽.

39) A Ya Gutman, Richard A Pierce, *The destruction of Nikolaeusk-on-Amur: an episode in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1920* (Fairbanks: Limestone Press, 1993), p. 48.

40) 菅原佐賀衛, 1925, 『西伯利出兵史要』, 偕行社, 156~157쪽.

41) 日本外務省, 1949, 『日本外交文書(1920)』 第一冊 下卷, 外務省, 794~796쪽.

42) 엔.아. 부제닌, 엔.데. 부제닌, 알틴벡 쿠르만타예프 역, 2004, 『러시아 내전에서의 한인들의 참전』, 『역사문화연구』 24, 99쪽.

일본군은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중국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봉천의 장작림과 협상하여 중국군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고, 다만 감독과 지원을 일본군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sup>43)</sup>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1919년 10월 장작림은 ‘寬城子事件’을 일으켜 길림성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길림을 완전하게 장악하지는 못했다.<sup>44)</sup> 따라서 장작림이 길림에서 일본군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sup>45)</sup> 결국 중국 내 상황으로 인해 중국군을 활용하는 계획은 실패하였다.<sup>46)</sup>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을 중심으로 탄압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서,<sup>47)</sup> 간도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조선군을 간도침략의 중심 부대로 계획하였다.<sup>48)</sup> 그리고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을 기반으로 간도를 침략하기 위한 『間島地域不逞鮮人剽討計劃』을 작성하였다.

- 
- 43) 일본군은 봉천군벌의 한인 탄압을 지원하기 위해 1개 연대 규모의 일본군을 한시적으로 파견해 중국군과 합동수사대를 구성하고, 작전간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朝鮮軍參謀部, 1926, 『間島出兵史』, 朝鮮郡司令部, 8~11쪽, 이하 『間島出兵史』). 조선군사령부 참모부는 1920년 10월의 간도침략 과정을 정리하여 군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교범화하여 배포하였다(『間島出兵史送付の件』(1926. 5. 3.), 『密大日記』其4 6冊の内 第4冊(1926)).
- 44) 장작림은 1919년 맹은원을 축출하면서 길림성을 장악할 수 있었다(『毎日申報』1919. 10. 5., 『寬城子事件』). 하지만 맹은원 세력 대부분은 그대로吉林에 남아있었다(陳志讓, 박준수 옮김, 1993, 『軍紳政權: 근대 중국 군벌의 실상』, 고려원, 221쪽).
- 45) 8월 하순 일본군 고문은 봉천군과 사전 합의에 따라 국자가에 도착하여 지역을 담당한 연길 도운에게 병력을 요청했지만, 연길 도운은 예하 병력이 이미 마적 토벌을 위해 타지로 출동했다는 이유로 병력을 지원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길림성에 병력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한인 탄압에 실패하였다(『間島出兵史』, 10쪽).
- 46) 조선군사령부 참모부에서 중국 측이 간도의 독립군을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국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독립군과 교섭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독립군 탄압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間島出兵史』, 13~14쪽).
- 47)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3, 2007, 426쪽(이하 『宇都宮太郎日記』). 宇都宮太郎은 1920년 7월 25일 당시 일본 육군대신이었던 다니카 기이치에게 관련 정보를 받았다.
- 48) 이 결정은 7월 27일 삼두회의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를 군사령관의 독단에 의한 것처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宇都宮太郎日記』1920. 7. 29.).

### Ⅲ. 1920년 조선군의 간도침략 계획의 수립

1920년 10월 일본군의 간도침략은 「間島地域不逞鮮人剿討計劃」을 토대로 하였다. 일본은 10월 2일 훈춘사건이 일어나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근에 주둔한 일본군이 긴급히 구원한 것처럼 선전하였다.<sup>49)</sup>

2일 아침의 훈춘 마적 습격사건에 대해 경찰국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2일 미명 마적 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영사관의 경찰서원 22명은 방어전에 힘껏 노력하였는데 먼저 지휘자인 영사관 경찰서장 경부가 적탄에 쓰러진 데 이어 다른 경찰서원 및 응원하던 내지인 여러 명도 쓰러진 상황이다. 일찍 부터 형세가 불온하여 야간에는 거류민을 관내에 수용하고 있었지만, 타국의 영토이기에 충분한 경비력을 배치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번과 같은 비참한 일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 같다.(경성특전)

거류민에게서 출병 요청 : 마적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 및 거류민을 습격한 사건에 관해 3일 간도 거류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3일발 전보를 본사에 보내왔다. (중략)

육군성 발표 : 훈춘에서는 지난 9월 12일 마적단 습격을 받은 이래 재습격 소문이 높아 인심이 흉흉하였는데 갑자기 10월 2일 오전 4시 다수의 불령선인이 섞인 약 3백 명의 마적단이 습격해 왔다. 이번에는 주로 일본인을 목표로 한 듯 영사관은 불태워지고 거주민은 약탈되어 내지인에는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28명이 나왔다. 특히 부녀자까지 참살하고 남자는 총살 후 찢러 죽이는 등 포악한 과격과와 닮은 점이 있다. 같은 지역 중국 군대도 이를 탄압하지 못하고 마적단은 오전 8시경에 이르러 훈춘 북방산 방향으로 철수하였지만 재습격할 낌새가 있어 인심 동요가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 의해 우리 조선군은 구원을 위해 경원수비대 대부분을 같은 날 오후 훈춘에 급히 보냈다.(경성특전)<sup>50)</sup>(밀줄 인용자)

49) 『毎日申報』 1920. 10. 4; 10. 9.

50) 『大阪朝日新聞』 1920. 10. 4, 석간(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39: 『大阪朝日新聞』 한국관계기사집 II 1920.9~1921.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88~89쪽 번역 참조).

당시 일본 신문은 일본군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을 실시간 보도하였다. 이때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면 주로 ‘경성특전’(인용문 밑줄 참조) 즉 서울에서 중국 동북지역 상황을 전달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에는 이미 일본과 전신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간도의 거류민단은 오사카의 신문사로 전보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요 신문은 대부분의 소식을 서울을 경유하여 전달받았다. 이것은 조선군이 훈춘 일대를 장악하여, 통신까지 통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언론에 알려진 훈춘사건은 대부분 조선군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군은 일본 육군에서 부여한 임무를 중심으로 작전을 계획하여 수행하였다. 군사적 ‘獨斷’ 역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할 때 인정받을 수 있었다.<sup>51)</sup> 이 때문에 당시 일본 육군은 1918년 개정된 『帝國國防方針』을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것은 그 예하부대인 조선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군의 전시 임무는 개전과 동시에 연해주의 러시아군을 고착 견제하는 것이었다.<sup>52)</sup> 이를 위해 조선군은 러시아와 개전하면 회령을 통해 주요 지역에 부대를 전개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여 일본군이 증원할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조선군의 세부적인 작전 계획 수립은 조선군사령부 참모부가 중심이었다. 1920년 간도침략 계획 수립 역시 조선군사령부 참모부(이하 참모부)가 중심이었다. 참모부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전지역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참모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작전지역과 인접한 관동군 및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등에서 파악한 내용과 현지 일본 영사관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제공한 내용까지 종합하였다.<sup>53)</sup> 이를 기초로 참모부에서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sup>54)</sup>

51) 신효승, 2018, 『일제의 ‘제암리 학살사건’과 미국 선교사 기록의 형성 과정』, 『학림』 41, 192쪽.

52) 『帝國軍ノ用兵綱領』, 『帝國國防方針』(1907).

53) 『附圖第一 間島地方不逞鮮人概況圖』, 『間島出兵史』.

이전에도 간도의 한인과 독립군은 중요하였다. 조선군사령부는 1919년 9월 12일 예하부대에 ‘불령선인 토벌에 관한 훈령’(朝參密 第906號 ‘對不逞鮮人作戰ニ關スル訓令’)을 하달하였다.<sup>55)</sup> 당시 중국 동북지역 한인은 국제연맹의 회의에 맞춰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에 진입을 시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는 시위를 일으켜 국제 여론을 이용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여 간도의 ‘불령선인’을 ‘剿討’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6)</sup> 따라서 조선군은 중국군과 교섭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 한인에 대한 탄압을 계획하였다.<sup>57)</sup> 하지만 1920년에는 이미 국제연맹을 비롯해 국제 정세가 바뀐 상태였다.

1920년 6월 일본이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시베리아에 재파병하면서 조선군의 중국 동북지역 한인 탄압 계획은 對露作戰으로 발전하였다. 일본군은 침입의 명분을 위해 중국 마적단과 모의해 훈춘사건을 일으켰다.<sup>58)</sup> 이때 조선군은 한인과 러시아 ‘과격파’ 간의 관련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러시아 ‘과격파’에 의해 벌어진 이른바 ‘니항사건’이 일본이 시베리아에 재출병한 이유였기 때문에 조선군은 러시아 ‘과격파’와 한인 간의 관계를 빌미로 간도 침략의 결정적 근거로 이용할 수 있었다.

10월 2일 2차 훈춘사건이 일어나자 함경도 나남에 주둔한 19사단장은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당일 예하부대를 훈춘에 급파하였다.<sup>59)</sup> 이후 19사단장은 훈춘에 마적단의 위협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예하부대를 증원하였다. 19사단장은 훈춘사건이 한인과 러시아 과격파와 관련이 있다고 주

54) 『間島出兵史』, 3~4쪽.

55) 『朝參密 第906號 對不逞鮮人作戰ニ關スル訓令』(1919. 9. 12.), 『間島出兵史』, 3~4쪽.

56) 이를 근거로 1920년 6월 7일 安川の 越江追撃대가 봉오동의 독립군을 공격하였다(『宇都宮太郎日記』 1920. 6. 12.). 1919년 상황과 이에 따른 宇都宮太郎의 훈령은 이후 조선군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 시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附錄第一 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1920. 8.), 『間島出兵史』, 213쪽).

57) 『間島出兵史』, 5~6쪽. 宇都宮太郎는 이와 관련하여 1919년 5월 12일 관련 보고와 지시를 하였다(『宇都宮太郎日記』 1919. 5. 12.).

58) 오천석, 2011, 「1920년 “경신년도별전”을 논함」, 『역사와세계』 40, 74~75쪽.

59) 『間島出兵史』, 23~25쪽.

장하였다.<sup>60)</sup> 이를 빌미로 조선군사령관은 일본 육군대신과 참모총장에게 훈춘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간도의 독립군 등을 적극적으로 탄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剿討作戰’의 시행을 일본 육군에 요청하였다.<sup>61)</sup>

이와 함께 조선군사령관은 예하부대에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조선군사령관은 ‘초토작전’의 승인을 전제로, 작전이 시행되었을 때 지체없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하부대의 준비를 명령하였다.<sup>62)</sup> 처음 조선군사령관이 일본 육군에 승인을 요청한 계획은 훈춘에 보병 2개 대대, 穩城에 보병 1개 등 보병 3개 대대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었다.

10월 6일 20사단장은 조선군사령부의 준비 명령에 따라 19사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sup>63)</sup> 7일 새벽 20사단장은 예하 부대가 전투 준비를 완료하자, 곧 작전지역으로 부대 이동을 지시하였다. 부대는 원산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청진으로 이동한 후, 청진에서 육로로 회령을 거쳐 훈춘 등 작전 지역에 전개하였다.<sup>64)</sup> 20사단 증원부대는 청진에 도착하면서 19사단에 배속되어 지휘를 받았다.<sup>65)</sup>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10월 7일 야간 11시에 조선군의 간도지역 ‘초토작전’을 형식상 승인하였다.<sup>66)</sup> 그리고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조선군사령부에 총무부장을 파견하여 제반 지원 사항을 의논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7)</sup> 10월 9일 오후 9시경 일본 육군은 조선군사령부의 작전을

60) 『間島出兵史』, 15~19쪽.

61) 『間島出兵史』, 30쪽. 하지만 이미 일본 육군은 조선군사령관에게 이와 관련해 사전 지시를 한 상태였다(『宇都宮太郎日記』 1920. 7. 25.).

62) 『朝鮮軍司令官 意見具申』(1920. 10. 6.), 『間島出兵史』, 25~26쪽.

63) 『朝參密 第1008号』(1920. 10. 6.), 『間島出兵史』, 27쪽. 20사단 평시 편제 하에 개인별 탄약 120발을 지급하고, 기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陣中要務令』의 규정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였다. 다만 작전 지역의 기상을 고려하여, 방한용품을 개인별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朝參密 第1009号』(1920. 10. 6.), 『間島出兵史』,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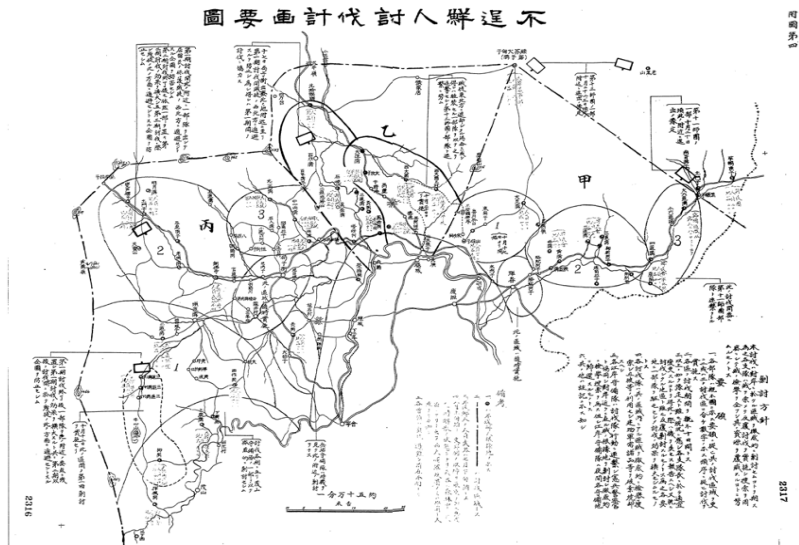
64) 『朝參密 第1010号』(1920. 10. 6.), 『間島出兵史』, 29~30쪽.

65) 『間島出兵史』, 27쪽.

66) 『間島出兵史』, 33쪽.

67) 『間島出兵史』, 30~31쪽.

최종 승인하였다. 일본 육군대신의 지시(68)와 일본군 참모총장의 지시(69) 등을 첨부하여 11일 조선군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하였다.(70)



〈그림 3〉 不逞鮮人討伐計畫要圖(1920. 10. 13.)<sup>71)</sup>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하달한 명령은 이전 조선군사령부에서 입안한 작전 계획을 토대로 하였다. 일본 육군은 조선군사령부에서 요구한 산포 이외도 항공전대<sup>72)</sup> 등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인접부대에서도 조선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작전지역 인접부대에도 조선군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sup>73)</sup>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대하여 철수 중이던 14사단의 1

68) 『軍務局參謀本部命 第四九七号 ‘指示’, 『間島方面出兵に関する件』(1920. 10. 9.), 『間島事件關係書類』 共2册 其1(1920-192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6031226700).

69) 『浦潮派遣軍司令官及朝鮮軍司令官に指示の件通譯』(1920. 10. 11.), 『陸密第二一八号作命第五十七号訓令ニ基キ左ノ指示ヲ爲ス』(1920. 10. 11.), 『間島事件關係書類』 共2册 其1(1920-192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6031225900).

70) 『間島出兵史』, 37쪽.

71) 『附圖第四 不逞鮮人討伐計畫要圖』, 『間島出兵史』.

72) 名和田雄, 高瀬七郎, 1975, 『戰史叢書: 陸軍航空兵器の開発・生産・補給』, 防衛研修所戰史室.

개 여단은 조선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지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도록 하였다.<sup>74)</sup> 조선군사령부에서도 19사단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 지역의 상황을 계속해서 수집하여 정보를 최신화하였다.<sup>75)</sup>

일본 육군의 명령에 따라 조선군사령부 참모부는 10월 11일 ‘초토작전’을 위한 작전 계획을 확정하여 19사단을 비롯한 관련부대에 명령을 하달하였다.<sup>76)</sup> 19사단장은 조선군사령부의 최종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작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 작전을 일본군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본 정부는 군사적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국을 상대로 특별에 대한 협정을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10월 16일 일본 간도 총영사대리와 연결 도운 간에 ‘10월 17일 오전 0시에 행동을 개시’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sup>77)</sup>

제반 준비와 함께 19사단장은 ‘초토작전’ 실행 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19사단장은 조선군사령관의 훈령에 따라 작전을 2단계로 나누어 각 1개월씩 2개월간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기에는 작전 지역내 조직적 저항이 가능한 독립군 부대를 찾아 ‘殲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군의 조직적 저항 활동을 분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2기에는 지역 내 부락과 삼림 등에 잠복한 독립군 잔여 세력을 수색하여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지대에 책임 구역을 할당하였다.<sup>78)</sup> 작전 활동을 단계화 한 것은 이른바 한인의 독립운동과 그 근거지를 체계적으로 ‘焦土化’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군은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한인에게 과시하여 저항 의지를 차단하고, 독립군을 근거지에서 분리하기 위해 무력시

73) 日本陸軍參謀本部, 1924, 『西伯利出兵史: 大正七年乃至十一年』 下, 108~110쪽.

74) 『浦潮派遣軍司令官及朝鮮軍司令官に指示の件通譯』(1920. 10. 11), 『陸密第二一八号作命第五十七号訓令ニ基キ左ノ指示ヲ爲ス』(1920. 10. 11), 『間島事件關係書類』 共2冊 其1(1920-192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6031225900).

75) 조선군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북로독립부 최명록 부대 등은 연길의 맹부덕 단장의 요청에 따라 綏芬大甸子로 이동하였다고 파악하였다(『間島出兵史』, 36쪽).

76) 『朝軍作命 第三号 ‘第十九師團長ニ与フル軍訓令』(1920. 10. 11), 『間島出兵史』, 37~40쪽.

77) 『間島出兵史』, 51쪽.

78) 『朝軍作命 第三号 ‘第十九師團長ニ与フル軍訓令』(1920. 10. 11), 『間島出兵史』, 37~40쪽.

위와 최신 무기를 동원하였다.<sup>79)</sup> 이처럼 일본군의 작전 수립 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면 간도침략은 훈춘사건 이후가 아닌 그 이전부터 일본 육군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한 결과였다. 특히 6월 일본군의 시베리아 재출병 이후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였다.

#### IV. 맺음 말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의 군사전략은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帝國國防方針』은 일본의 군사전략을 잘 보여준다. 『帝國國防方針』을 토대로 일본군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부대의 배치를 비롯한 부대 운용부터 준비와 동원까지 군 관련 제반 사항을 포함하였다. 1907년 『帝國國防方針』 수립 시기에는 군사전략상 러시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점차 군사전략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18년 『帝國國防方針』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1914년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였고, 일본은 1918년 체코군 구출을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파병하여 바이칼호 동쪽을 점령하였다. 일본은 점령 지역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 육군은 전시 작전의 중심지역을 바이칼호에서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동북지역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1918년 『제국국방방침』을 개정하면서 일본군은 중국 동북지역 중 간도지역을 작전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간도는 공간적으로 일본의 군사전략상 중심이었지만, 국제 관계 등의 문

79) 민중과 파르티잔을 분리하기 위한 전술중 일본군이 사용한 무력시위 등을 통한 방법을 이른바 ‘교반전술’이라고 한다. 일본군의 교반전술은 한말 의병전쟁 당시부터 일본군이 의병을 상대로 사용한 대표적인 전술이다(김현주, 2018, 『후기의병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6쪽).

제로 인해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 이 지역의 한인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군사전략을 배후에서 위협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이 지역의 한인 탄압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간도를 작전지역으로 담당하고 있는 조선군의 임무로 이어졌다. 이후 일본은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조선군을 간도에 파병하여 침략하였다.

##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아시아역사자료센터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朝鮮軍參謀部, 1926, 『間島出兵史』

參謀本部, 1924, 『西伯利出兵史: 大正七年乃至十一年』(영인본 新時代社, 1972)

日本外務省, 1949, 『日本外交文書』 第一冊 下卷(1920), 外務省

김도형, 2014,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유교 비판과 변동』, 지식산업사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임종국, 1988, 『조선침략사』, 일월서각

장세운, 2015,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마틴 반 클레벨트, 이동욱 역, 2006, 『과학기술과 전쟁—B.C. 2000부터 오늘날까지』, 황금알, 2006

徐 徹, 유가원 역, 2011, 『만주군벌 張作霖』, 아지랑이

陳志讓, 박준수 역, 1993, 『軍紳政權: 근대 중국 군벌의 실상』, 고려원

야마다 아키라, 윤현명 역, 2014,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어문학사

후지와라 아키라, 엄수현 역, 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A Ya Gutman, Richard A Pierce, *The destruction of Nikolaeusk—on—Anur: an episode in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1920(Fairbanks: Limestone Press, 1993)

Jamie Bisher, *White Terror: Cossack Warlords of the Trans—Siberian* (New York : Routledge, 2005)

角田順, 1967, 『滿州問題と國防方針』, 原書房

角田順, 1987, 『政治と軍事: 明治・大正・昭和初期の日本』, 光風社出版

菅原佐賀衛, 1925, 『西伯利出兵史要』, 偕行社

島貫武治, 1967, 『戰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昭和十五年五月まで』, 防衛研修所戰史室

名和田雄, 高瀬七郎, 1975, 『戰史叢書: 陸軍航空兵器の開発・生産・補給』, 防衛研修所戰史室

西原征夫, 1969, 『戰史叢書: 關東軍(1) 對ノ戰備・ノモンハン事件』, 防衛研修所戰史室

- 小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桂太郎と後藤新平』, 南窓社
- 小林道彦, 1997, 『帝國國防方針の補修と日本陸軍』, 『北九州大學開學五十周年記念論文集』
- 小林道彦, 1999, 『大陸政策と人口問題—1918年～31年』, 『環太平洋の國際秩序の模索と日本—第一次世界大戰後から五五年体制成立』, 山川出版社
- 小林道彦, 2010, 『政党内閣の崩壊と滿州事変: 1918～1932』, ミネルヴァ書房
- 小林道彦, 2013, 『日本政治史のなかの陸海軍: 軍政優位体制の形成と崩壊 1868～1945』, ミネルヴァ書房
- 室山義正, 1987, 『帝國國防方針』の制定』, 『日本歴史大系 4: 近代 1』, 山川出版社
- 伊藤正徳, 1941, 『國防史』, 東洋經濟新報社
- 増田知子, 1982, 『海軍擴張問題の政治過程』, 『年報近代日本研究 4: 太平洋戦争』, 山川出版社
- 黒野耐, 2004, 『參謀本部と陸軍大學校』, 講談社現代新書
- 黒野耐, 2007, 『國際關係と同盟-日英同盟の終焉』, 『武蔵野學院大學日本總合研究所研究紀要』 5
- 김춘선, 2000, 『庚申慘變 연구』, 『한국사연구』 111
- 마쓰다 도시히코, 2003, 『일본육군의 중국대륙 침략정책과 조선: 1910～1915년』, 『한국문화』 31
- 박영준, 2004, 『러일전쟁 직후 일본해군의 국가구상과 군사전략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 신주백, 2000,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조선주둔 일본군』, 『한국사연구』 109
- 신주백, 2006, 『조선 주둔 일본군(“조선군”)의 성격과 역할』, 『동양학』 39
- 앤.아. 부제닌, 엔.데. 부제닌, 알틴벡 쿠르만바예프 역, 2004, 『러시아 내전에서 의 한인들의 참전』, 『역사문화연구』 24
- 오천석, 2011, 『1920년 “경신년토벌전”을 논함』, 『역사와세계』 40
- 유한철, 1992, 『日帝 韓國駐軍의 한국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 장형익, 2009, 『근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제국국방방침』』, 『군사』 70
- 전영욱, 2014, 『한국병합 직후 일본육군 및 제국의회회의의 ‘제국통합’ 인식과 그 충돌의 의미-제27회 제국의회회의의 制令權과 재조 일본인 논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7
-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침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 조필근, 2011, 『靑山里戰役의 軍事史學的 再照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 정예지, 2011, 『경신참변(庚申慘變)기 조선인 “귀순”문제 연구-북간도를 중심으로』, 『史林』 38
- 조명철, 2010, 『“上原 육군대신의 사퇴오 사단증설문제』, 『사충』 71
- 채영국, 1992, 『3.1 운동 전후 일제 「조선군」(주한일본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6

토베 료이치, 2005, 「조선주둔 일본군의 실상: 치안·방위·제국」,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5

황병선, 2014, 「민군관계와 군사전략의 공세성—1907년 『일본제국국방방침』의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논집』 70(2)

高田甲子太郎, 1984, 「国防方針制定以前の陸軍年度作戰計畫」, 『軍事史学』 20(1)

小林道彦, 1985, 「『帝国国防方針』再考」, 『史学雑誌』 98(4)

小林道彦, 1994, 「世界大戦と大陸政策の変容—1914~16年」, 『歴史学研究』 657

小林道彦, 2012, 「日露戦争から大正政変へ—1901~1913」, 『近代日本研究』 29

黒野耐, 1996, 「『帝国国防方針』 戦略・作戰用兵考」, 『軍事史学』 124

黒野耐, 1996, 「『帝国国防方針』 政戦略考」, 『国際政治』 121

黒野耐, 2003, 「国家戦略と同盟—日英同盟の教訓」, 『年報戦略研究』 1

黒野耐, 2003, 「第二次日英同盟と国防方針」, 『防衛研究所紀要』 5(3)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5

김현주, 『후기의병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신효승, 『20세기 초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투고일 : 2018년 10월 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28일

■ Abstract ■

## Changes in Japan's Military Strategies and Invasion into Gando after the First World War

Shin, Hyo Seung(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apan kept making wars in Northeast Asia. Japan's made the wars to take the imperialistic hegemony in Northeast Asia. For this purpose, Japan established military strategies for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changed after the First World War, Japan modified its military strategies.

Japan attempted to gain supremacy in the Pacific Region as well. However, Japan lacked military power to conduct its military strategies. Japan would make Siberia a buffer zone to cover for the military power. At the time, Japan encountered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The Korean people w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To do so, they built military bases outside the Peninsula as well. The Korean people expanded the range of their Independence Movement to overseas. Most of the Korean people's overseas military bases were located in Gando. Gando was the link between Japan and Siberi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Japan's military strategies after the First World War.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Japan's military strategies and the Japanese Army's 'Invasion of Gando' in 1920.

Key words :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First World War, Cheongsan-ri, Gyeongsin Catastrophe, Japanese Army, Military strategies, Independence movement, The people, Gando, Gando Disaster, Dispatch of Japanese troops to Gando